

# 지난해 3분기, 술·담배 소비액 사상 최대



▲ 술·담배 소비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KBS화면 캡처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7월~9월) 한국 소비자의 술, 담배 지출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여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KBS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지난해 3분기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계절 조정, 명목) 가운데 주류 및 담배 지출액은 4조2천975억 원이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1970년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낸 이후 분기 기준

으로 가장 많은 액수다.

지난해 3분기의 1년 전 대비 술, 담배 지출액 증가율은 6.2%로, 2016년 2분기(6.5%)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집단적 피로감이 커진 데다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강화하자 술, 담배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봤을 때도 지난해 3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가계지출 가운데 주류·담배 소비지출 금액은 4만2천980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주류(1만9천651원)와 담배(2만3천329원) 소비지출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최대였다.

지난해 3분기 현재 오락, 스포츠 및 문화 부문 소비 지출액은 12조3천963억 원으로, 2012년 3분기(12조3천298억 원) 이후 가장 적었다. 2019년 3분기와 비교하면 24.1%나 줄어든 수치로 감소율은 역대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문을 닫은 공연장과 체육 시설들이 많았던 탓으로 풀이된다.

# 지난해 말 외환보유액 7개월 연속 사상 최대



▲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사진=유튜브(연합뉴스TV) 캡처

지난해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400억 달러를 돌파했다.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다.

6일 '머니S'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 '2020년 12월 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말 외환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전월 말 대비 67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큰 폭 늘어난 건 미 달러화 약세로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이 크다. 12월 중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미 달러화 지수는 2.3% 하락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나고, 금융기관의 기준 예치금이 증가한 점도 외환보유액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치금은 202억8,000만 달러로 90억5,000만 달러 급감했으나 국채와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4,098억4,000만 달러로 전월대비 152억 달러 증가했다.

주요국과의 순위를 비교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36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을 유지했다.

1위인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1,785억 달러로 505억 달러 불어났고 다음으로 일본(1조3,846억 달러), 스위스(1조365달러), 러시아(5,827억 달러), 인도(5,748억 달러), 대만(5,134억 달러), 홍콩(4,857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69억 달러) 순으로 집계됐다.

# 창원시, 결혼 대출금 1억 세 자녀 출산 시 전액 탕감

경남 창원시가 인구 100만 명을 사수하기 위해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8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3일 지역 주민에게 결혼 대출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보장하고 아이 셋을 낳으면 이를 전액 탕감해주는 출산장려 정책인 '결혼드림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생활권이 같은 창원시·마산시·진해시 등 3개 시가 합쳐서 109만명의 매머드급 기초지자체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작년 11월 기준 인구가 103만 7,000명대로 감소하며 인구 위기를 겪고 있다.

창원시의 결혼드림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기까지 실효성 측면에서 충분히 살펴 봐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부 시민들도 창원시의 이 같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금 지원보다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반면, 출산을 원하는 부부들에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연간 4만명씩 인구가 감소한 형가 리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를 낳으면 대출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을 통해 작년 30년만에 혼인건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효과를 냈다"며 "결혼드림론"은 지역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도시활력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시는 경기도 경기도 수원시·고양시·용인시 등과 함께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자치단체치고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0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게 광역시급 행·재정적 권한을 부여하는 특례시 지위를 얻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창원시는 인구 감소로 특례시 혜택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다.

##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신규 케이스 상담 접수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복선)/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